비엔나 시민대학 (Vienna Neighborhood College)

비엔나 시민대학이라? 보통의 대학이 아니라 비엔나 지역 다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한 이웃이 되기 위한 커뮤니티 모임이다. 중앙장로교회가 위치한 비엔나 시에 함께 사는 다민족이 서로 소통이 원만치 못한 점을 개선하고 다양한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수준 높은 커뮤니티를 조성하고자 페어팩스 카운티와의 공동주관으로 다민족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2007년에 시작되어 이번이 2회로, 5월 1일부터 매주 목요일 총 6번의 수업이 진행되어 6월 5일 종강을 했다. 비엔나 시청, 비엔나 장로교회 (Vienna Presbyterian Church), 이슬람 헤리티지 센터, 비엔나 제일 침례교회 (First Baptist Church of Vienna), 그리고 중앙장로교회가 수업장소를 제공하여 다문화에 접할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시민대학에 한국인으로는 김지연 사모, 금연모리스, 노세웅, 윤송숙, 전혜성, 심안젤라 등 6명이 참가했다.

비엔나 시청에서 열린 첫 모임에는 씨먼 (Seeman) 비엔나 시장이 참석하여 격려의 인사말을 전하고, 페어팩스 카운티의 역사와 전통, 커뮤니티, 예산, 전망 등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 시민대학을 통해서 참석자들은 이슬람과 기독교 등 서로 전혀 다른 문화권에 조금이나마 접근해 보고 타문화권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다민족 사회인 미국에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함께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나가야 함에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또한,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다문화권의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재미있게 배우고 익히는 기회도 있었다. 까만 차도르를 쓰고 참석한 아랍 여인을 포함하여 모두가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의사 발표를 하는 것이 돋보였다.

특히 다른 문화권의 공동체들이 돌아가며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참석자들이 각각의 문화권을 직접 보고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중앙장로교회에서 모였을 때에도 노창수 목사가 환영사를 하였고, 본 교회와 씨니어센터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를 통해 페니 그로스(Penny Gross) 수퍼바이저와 페어팩스 카운티 디렉터 페트리샤 스티븐스(Patricia Stevens), 기타 참석자들이 중앙씨니어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많은 봉사자의 헌신을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다양한 민족의 공동체를 서로 소개하고 의견을 나누는 귀한 경험이기도 했다.

취재/윤송숙